

숫한 시기의 시인들, 즉 정지용·김영랑·백석은 우리말을 아름답고 세련되게 갖고 닦지 않았느냐 하는 것이다. 운동주는 다단하고 긴박한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말을 아름답고 세련되게 갖고 닦을 여유가 없었다. 그는 소학교에서 대학교까지 간도·평양·서울·동경·교토에서 여덟 군데의 학교를 다녔고, 거주하는 공간도 명동촌에서 후쿠오카까지 여덟 군데나 옮겨 다녔다. 그의 언어가 삶의 자장력이 큰 언어일 수밖에 없는 이유다. 대신에, 그의 시적 언어는 맑은 영혼을 적시는 우리 겨레의 순수한 언어이다. 그는 현실의 언어와 당위의 언어 사이에서 어느 한 쪽으로 기울지 않으려고 했다. 그의 시적 언어를 두고 이와 마찬가지로 어느 한 쪽으로 기울지 아니하는 ‘무저울의 언어’라고 말하면, 또 어떠할까?

올해인 2015년 3월 2일에, 일본의 아사히신문은 이례적인 사설을 실는다. 사설의 제목은 「비극의 시인에 관한 생각을 가슴에(悲劇の詩人の思いを胸に)」이다. 이것은 조선일보가 그 다음날에 우리말로 옮겨져 다시 실는다. 이 사설의 내용을 보면, 여기엔 후쿠오카현립대 명예교수 니시오카 겐지(西岡健治)가 한일관계가 좀 어색해도 운동주 애기가 나오면 이상하게 순수해진다는 점을 들어 ‘운동주 매직’이란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이 소개되어 있다. 그리고 사설은 매우 의미가 있고 여운이 그윽이 감도는 말 한 마디를 남긴다.

운동주는 왜 성(姓)을 바꾼 것일까. 어쩌서 한글을 고집한 것일까. (일본인인-인용자) 우리는 그 점을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¹⁸⁾

경남 서부 방언의 성조

- 진주·산청 방언을 중심으로

이토 다카요시(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차 례

1. 서론
2. 진주·산청 방언 성조의 기본적 특징
3. 진주·산청 방언 성조의 개신적 특징
4. 진주·산청 방언 성조의 보수적 특징
5. 결론

1. 서론

한국어 방언 중에서 성조가 변별적인 방언으로는 동북방언, 동남방언, 강원도의 일부 방언을 들 수 있다. 동남방언과 강원도의 일부 방언의 성조 체계는 서로 유사하지만, 각 방언마다 크고 작은 차이를 보이기도 한다.

진주·산청 방언은 동남방언 중에서 개신적인 성조 체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기존 연구에서의 일반적인 시각이다. 김차균(1973, 1977/80)에서는 여러 성조형을 Pen, 형으로 합류시키는 규칙이, 大江.

18) 조선일보, 2015. 3. 3.

孝男(1978)에서는 모든 ‘부정부사+용언’ 구성에 Pen.형을 부여하는 규칙이, 久保智之(1993)에서는 모든 ‘의문사+용언’ 구성에 Pen.형을 부여하는 규칙이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규칙의 존재는 진주 방언이 다른 동남 방언에 비해 단순한 성조 체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영국 영어와 미국 영어 중에서 어느 방언이 더 보수적인 방언이라고 할 수 없는 것처럼 모든 방언은 다른 방언에 비하여 보수적인 성격과 개신적인 성격을 함께 가지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¹⁹⁾ 진주·산청 방언의 성조에도 다른 동남방언에 비해서 개신적인 특징이 있을 뿐만 아니라 보수적인 특징 또한 존재한다는 사실을 지적하는 것이 본 발표의 목적이다.

2절에서는 먼저 진주·산청 방언 성조의 기본적 특징을 설명한다. 3절에서는 두 방언 성조의 개신적인 특징을, 4절에서는 보수적인 특징을 살펴본다. 5절은 결론이다.

2. 진주·산청 방언 성조의 기본적 특징

진주·산청 방언을 포함한 동남방언의 성조는 중국어의 성조처럼 음절을 단위로 얹히는 음절성조가 아니라, 단어(word)를 단위로 얹히는 단어성조에 가까운 성격을 가지고 있다. 본 발표에서는 김차균(1977/80), 이토 다카요시(2015) 등을 따라 동남방언에서 한 단어에 얹히는 성조를 ‘성조형’이라고 부르기로 한다.²⁰⁾

19) 영국 영어에는 어말/r/탈락(예 : car /ka: r/ > /ka: /)이나 불어 차용어 악센트의 이동(예 : garage /gə'ra: ʒ/ > /gæra: dʒ/) 등의 새로운 특징이 존재하지만, 미국 영어에도 모음간 /t/의 설탄음화(예 : data /'dɛrta/ > /'dɛrɹa/)이나 [ju:] > [u:]의 변화(예 : new [nju:] > [nu:]) 등의 새로운 특징이 존재한다.

20) 동남방언의 성조단위는 학교문법에서 정의하는 ‘어절’ 혹은 언어학적인 의미에서 쓰이는 ‘단어(word)’와 대체로 일치하지만 ‘철수는[HHM]#부산에 갔다[MHM MM]’과 같이 실제 발화에서는 복수 어절이 하나의 성조단위를 이루는 경우가 많다. 성조단위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이토 다카요시(2015: 33-35)를 참조할 수 있다.

진주·산청 방언은 頭高型, Pen.型, 去聲型, 上聲型의 네 가지 성조형만을 가진다. 두고형은 앞에서 첫 번째 음절만이, Pen.형은 뒤에서 두 번째 음절만이 아주 높고([H]) 나머지 음절이 모두 중간 높이([M])로 실현되는 성조형이다. 거성형, 상성형은 중세어 대응형이 제1음절에 각각 거성, 상성을 가지는 단어들이다. 진주·산청 방언에서 거성형은 제1·2음절이 높고([H]), 제3음절 이하가 중간 높이([M])로 실현된다. 진주 방언에서는 상성형이 제1음절이 아주 낮고([L]), 제2음절이 중간 높이([M])로, 제3음절 이하가 낮게([M]) 실현되며, 산청 방언에서는 상성형이 제1음절이 길고 높은 소리([H:])로, 제2음절이 높은 소리([H])로, 제3음절 이하가 중간 높이([M])로 발음된다.²¹⁾

다음은 大江孝男(1977)에 제시된 진주 방언의 네 가지 성조형의 예시이다.

- | | |
|-----|---|
| (1) | 진주 방언의 네 가지 성조형 |
| a. | 頭高型 [HM0] |
| | [H] 배(梨), 차(茶), 술(酒), 손(客), 춤(춤),
鍼, 장(場), 꽃, 싹 |
| | [HM] 버꿈(거품, 泡), 거북(거북이), 팽비(팽이),
씨리(서리, 霜), 고물(粉),
고름(고름), 가매(가마, 旋毛) |
| b. | Pen.型 [MH, M1HM] |
| | [MH] 바람, 주묵(주먹), 정기(부엌), 유리(琉璃), 여
물(草料), 거름(거름, 肥料), 가매(가마, 輿) |
| | [MHM] 까마구(까마귀), 싹가리(싹가루), 소나이
(소나기), 여드름, 싸락눈(靄), 땀쟁이(땀) |

21) 음조의 표기법은 이토 다카요시(2015)를 따른다. [H, h, M, m, L]은 가장 높은 음조부터 가장 낮은 음조까지를 표시한다. [X_n]과 같은 표기는 [X]라는 높이의 음조가 n음절 이상 연속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 장이, 焊工)
- c. 去聲型 [H, HHMO]
- [H] 배(舟), 깨, 팔(腕), 손(手), 밥, 명, 팔, 떡
- [HH] 구름, 장사(商), 쓰캐(숨), 꿀벌, 빈개, 형 쪼, 가지(枝)
- [HHM] 무지개, 싸까리(서캐, 蟻), 새김치, 수배이 (잠자리), 통나무, 장사꾼, 외판집
- d. 上聲型 [L, LMMO]
- [L] '매(鷹), 개, 벌(蜂), 눈(雪), 감(柿), 중(僧), 잣
- [LM] 사람, 장사(壯士, 葬事), 벌꿀, 배차(白菜), 안개, 우박, 까지(茄子)
- [LM_M] 사마구, 싸래이(싸라기, 糲), 마누라, 따반지(따리), 눈보라, 외삼촌, 심바람(심부름)

체언에 조사가 붙어도 대부분 단어는 단독형의 성조를 유지한다. 가령 단독형이 Pen.형인 '바람[MH]'은 '바람이[MHM], 바람보다[MMHM], 바람땡크로[MMMHM]'처럼 조사와 상관없이 항상 Pen.형을, 단독형이 거성형인 '배' (舟)는 '배가[HH], 배보다[HHM], 배땡크로[HHMM]'처럼 항상 거성형을, 단독형이 상성형인 '눈'(雪)은 '눈이[LM], 눈보다[LM_M], 눈땡크로[LM_MM]'처럼 항상 상성형을 유지한다.²²⁾ 그러나 두고형 1음절 체언만은 예외적으로 '배[H], 배가[HM], 배보다[MHM], 배땡크로[MHMM]'와 같이 붙는 조사에 따라 다양한 성조형을 가진다.²³⁾

22) [MH]가 '뒤에서 두 번째 음절에 H를 가진다'는 Pen.형의 정의에 맞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Pen.형에 분류되는 이유는 '바람'의 체언 패러다임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MH]를 Pen.형으로 해석하면 형태음운론적인 현상을 잘 설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용언에 어미가 붙으면 단어에 따라서 성조형이 유지되기도 하고 바뀌기도 한다. 1음절 용언 어간 중에서 '찾다'류와 '없다'류는 각각 거성형, 상성형을 유지하지만, '먹다'류, '앉다'류, '가다'류, '걷다'류는 두 개 이상 성조형 사이에서 교체를 보인다.

- (2) 진주·산청 방언 1음절 용언 어간 분류
- a. '찾다'류 (거성형)
 찾고[HH], 찾더라[HHM], 찾으면[HHM], 찾았다[HHM]
- b. '없다'류 (상성형)
 없고[LM], 없더라[LM_M], 없으면[LM_M], 없었다[LM_M]
- c. '먹다'류 (두고형~Pen.형)
 먹고[HM], 먹더라[MHM], 먹으면[HMM], 먹었다[HMM]
- d. '앉다'류 (두고형~Pen.형)
 앉고[HM], 앉더라[MHM], 앉으면[MHM], 앉았다[HMM]
- e. '가다'류 (두고형~거성형)²⁴⁾
 가고[HM], 가더라[HHM], 가면[HM], 갔다[HH]
- f. '걷다'류 (상성형~두고형)
 걷고[LM], 걷더라[LM_M], 걸으면[HMM], 걸었다[HMM]

체언에서도 용언에서도 공통적인 것은 진주·산청 방언의 모든 성조

23) 두고형 1음절 체언이 가지는 이러한 불규칙성 때문에 필자는 진주 방언 등을 일본 악센트론에서 말하는 '4형 악센트'와 동일한 것으로 보는 시각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24) '갈라 칸다'와 같은 활용형에서는 상성형을 가진다.

단위가 두고형, Pen.형, 거성형, 상성형 중 하나의 성조형만을 가진다는 점이다.²⁵⁾

3. 진주·산청 방언 성조의 개신적 특징

여기서는 진주·산청 방언의 대표적인 개신적 특징을 세 가지 개관한다. 첫 번째와 두 번째 특징은 성조 목록과 관련된 특징이고, 세 번째 특징은 문법기능과 성조의 관계와 관련된 특징이다.

3.1. Pen.형

2장에서 본 바와 같이 진주·산청 방언에는 두고형, Pen.형, 거성형, 상성형의 네 가지 성조형만이 존재한다. 그런데 이 중에서 Pen.형은 다른 방언에서 다양한 성조형에 대응한다. 김차균(1977/1980: 25)에 따르면 진주 방언의 [MMHM]은 다음과 같이 경주, 창원 방언의 [MMHM], [MHMM], [MMMh]에 대응한다.

- (3) 경주·창원 방언과 진주 방언의 성조 대응 관계
- a. 아주까리[MMHM] (경주, 창원) : 아주까리 [MMHM] (진주)
 - b. 고등학교[MHMM] (경주, 창원) : 고등학교 [MMHM] (진주)
 - c. 보리이삭[MMMh] (경주, 창원) : 보리이삭 [MMHM] (진주)

이러한 대응관계는 진주·산청 방언에서 과거에 여러 성조형이 Pen.형으로 중화되는 Pen.화를 겪었다는 사실을 시사한다.²⁶⁾

25) 진주·산청 방언에서 Pen.형은 실제로는 아주 높은 음조[H]에 위치가 두 번째 음절에서 마지막에서 두 번째 음절 사이에서 동요를 보인다. 예컨대 '기다린다'는 '기다린다 [MHMM]'로도 '기다린다[MMHM]'로도 실현된다. 그러나 이러한 음조 사이에 변별력이 없기 때문에 음운론적으로는 하나의 성조형으로 볼 수 있다.

3.2. 상성형

김차균(1977/1980: 24)에 따르면 1920년 이전에 태어난 진주 방언 화자들은 상성형을 [LM_MO]으로 발음하지만, 1930~1940년생의 화자들은 [LM_MO]과 [MHM1] 사이에서 동요를 보이며, 1950년 이후에 태어난 화자들은 상성형을 [MHM1]으로만 발음한다고 한다. 즉 진주 방언에서 어절 '원성이, 원성이'가 세대에 따라 다음과 같이 달리 발음된다.

- (4) 세대에 따른 진주 방언 상성형의 음조 차이
- a. ~1920년생 원성이[LM_M] 원성이가[LM_MM]
 - b. 1930~1940년생 원성이[LM_M~MHM] 원성이가[LM_MM~MHMM]
 - c. 1950~년생 원성이[MHM] 원성이가[MHMM]

이토 다카요시(2010)에 따르면 청년(91년생)의 진주 방언에서는 상성형이 Pen.형으로 나타난다.

- (5) 진주 방언 중장년/청소년 상성형의 음조 차이
- a. 고구마가[MHMM] (중장년 방언) : 고구마가 [MMHM] (청년 방언)
 - b. 사람보다[MHMM] (중장년 방언) : 사람보다 [MMHM] (청년 방언)

이는 중장년(1950년 이후 출생) 방언에 적용된 Pen.화 규칙의 적용 영역이 상성형에까지 확대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결과적으로 청

26) 이러한 변화가 일어난 지역은 진주·산청 방언을 포함한 경남 서부 방언과 경북 서부 방언이다.

년층 진주 방언은 두고형, Pen.형, 거성형의 세 가지 성조형만을 가지게 된 것이다. 이는 다른 지역의 청년층 방언에 비해서도 상당히 개신적인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3.3. '부정부사+용언' 및 '의문사+용언' 구성의 성조

大江孝男(1978: 36-41)에 따르면 진주 방언의 '부정부사+용언' 구성은 용언 단독형의 성조형과는 무관하게 모두 Pen.형을 가진다. 다음은 大江孝男(1978: 36-41)에서 인용한 예시이다.

- (6) 진주 방언 '부정부사+용언' 구성의 성조
- | | | |
|----|-----------------------|-------------|
| a. | 갈았다[HMM] | 안 갈았다[MMHM] |
| | 몬 갈았다[MMHM] | |
| b. | 답는다[MHM] | 안 답는다[MMHM] |
| | 몬 답는다[MMHM] | |
| c. | 쓸었다[HHM] | 안 쓸었다[MMHM] |
| | 몬 쓸었다[MMHM] | |
| d. | 신는다[LM _M] | 안 신는다[MMHM] |
| | 몬 신는다[MMHM] | |

久保智之(1993: 106-107)에 따르면 진주 방언의 '의문사+용언' 구성도 '부정부사+용언'과 마찬가지로 용언 단독형의 성조형과는 무관하게 모두 Pen.형을 가진다. 다음은 久保智之(1993: 106-107)에서 인용한 예시이다.

- (7) 진주 방언 '의문사+용언' 구성의 성조
- | | |
|----|---|
| a. | 누가 김치 묵노? |
| | [MM MM HM] |
| b. | 얼마 하모 대구 갈 수 있는지 나느 모르겠는데. |
| | [MM MM MM M M MHM# HM#MMM _H M] |

이토 다카요시(2015: 116-136)에 따르면 산청 방언의 '부정부사+용언', '의문사+용언' 구성도 진주 방언과 마찬가지로 Pen.형을 가진다. 진주·산청 방언이 가지는 이러한 특징은 사실 아주 개신적인 것이다. 예컨대 안동 방언의 '부정부사+용언', '의문사+용언' 구성은 다음과 같은 성조를 보인다.

- (8) 안동 방언 '부정부사+용언' 구성의 성조
- | | | |
|----|----------------------------|-------------|
| a. | 갈았다[HMM] | 안 갈았다[MHMM] |
| | 몬 갈았다[_H : hMM] | |
| b. | 답는다[MHM] | 안 답는다[MMHM] |
| | 몬 답는다[_H : hMM] | |
| c. | 쓸었다[HHM] | 안 쓸었다[HMMM] |
| | 몬 쓸었다[_H : hMM] | |
| d. | 신는다[LM _M] | 안 신는다[HMMM] |
| | 몬 신는다[_H : hMM] | |

- (9) 안동 방언 '의문사+용언' 구성의 성조
- | | |
|----|--|
| a. | 누가 김치 묵노? |
| | [_{HH} MM MM] |
| b. | 얼마 하모 대구 갈 수 있는지 나느 모르겠는데. |
| | [_H : h MM MM M M MMM# HM#MMM _H M] |

안동 방언에서는 ‘부정부사+용언’, ‘의문사+용언’ 구성의 성조가 선행요소의 성조형과 후행요소의 성조형에 따라서 결정되며, 진주·산청 방언과 같이 일률적으로 같은 성조를 가지지 않는다. 안동 방언을 비롯한 경북 북부내륙 방언이 보이는 이러한 특징은 중세어에서 예상되는 성조와 일치하는 것이며, 따라서 보수적인 성조라고 할 수 있다. 진주·산청 방언도 과거에는 안동 방언과 같은 규칙을 가지고 있었다고 생각되지만, 먼저 음운론적인 원인으로 ‘부정부사+용언’, ‘의문사+용언’ 구성의 성조가 변화하기 시작하고, 그것이 <부정>이나 <설명명문>이라는 문법적 기능을 같이하는 동일 구성에 유추적으로 확대되면서 모든 ‘부정부사+용언’, ‘의문사+용언’ 구성이 Pen.형을 갖게 된 것이다.²⁷⁾

4. 진주·산청 방언 성조의 보수적 특징

여기서는 진주·산청 방언의 대표적인 보수적 특징을 세 가지 개관한다. 첫 번째 특징은 음조와 관련된 특징이며, 두 번째와 세 번째 특징은 패러다임 중에서의 성조 변동과 관련된 특징이다.

4.1. 장거성조

본 발표에서는 이토 다카요시(2015)를 따라 ‘거성형이 장음으로 시작하는 성조단위에 얹힐 때에 보이는 음조’를 ‘長去聲調’라고 부르기로 한다. ‘배: 미, 냐: 새, 봤: 다, 했: 다’와 같은 단어들 이 장음으로 시작하고 거성형을 가지는 단어의 예이다.

27) 진주·산청 방언 등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지금과 같은 단순한 성조를 가지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이 현상에 관해서 가장 보수적인 방언인 안동 방언과 가장 개신적인 방언인 진주 방언 사이에 존재하는 여러 방언의 ‘부정부사+용언’, ‘의문사+용언’ 구성의 성조를 분석함으로써 추정할 수 있다. 자세한 논의는 이토 다카요시(2015)를 참조하기 바란다.

이 단어들의 중세어형은 ‘뵈얌[HH], 내[H]+*음새[??], 보아 잇다[HH MH], 햐야 잇다[HH MH]’이다. 따라서 중세어와 동남방언의 일반적인 성조규칙 대응관계에 비추어 보면 ‘배야미[HHM], 내암새[HHM], 보았다[HHM], 하였다[HHM]’처럼 되는 것이 예상되며, 여기에 1·2음절의 모음축약이 일어나면 ‘배: 미[H: M], 냐: 새[H: M], 봤: 다[H: M], 했: 다[H: M]’가 예상된다.

이 단어들은 진주·산청 방언에서는 예상대로 [H: M]으로 발음된다. 즉 진주·산청 방언의 장거성조 [H: M]은 중세어에서 예상되는 그대로의 보수적인 성조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음조는 울산을 제외한 대부분 경남 지역과 경북 동해안의 영덕, 포항에서 관찰된다. 장거성조는 다른 지역에서는 상성 [H: H]에 이끌려서 [H: H]로 바뀌거나 발음의 편의를 위해 [FM]이나 [RM]으로 바뀌는 변화를 겪었다.

청년층의 진주 방언에서는 단모음화가 일어나서 ‘봤: 다[H: M], 했: 다[H: M]’ 등은 ‘봤다[HM], 했다[HM]’ 등으로 나타난다. 물론 이러한 발음은 전통적인 진주 방언에 비하면 개신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청년층의 안동 방언이나 대구 방언 등에서 발견되는 [H: H]가 단모음화해서 생긴 [HH]에 비교하면 근본적으로 보수적인 성격을 유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이토 다카요시 2015: 42-43, 70-73).

4.2. 거성형 1음절 체언 + ‘-에X’의 성조

진주·산청 방언에는 ‘밤, 논’처럼 단독형 및 대부분 조사와의 결합형이 거성형으로 나타나면서 ‘-에, -에서’와 같은 ‘-에X’계 조사와의 결합형이 두고형으로 나타나는 단어들이 있다.

- (10) ‘-에X’계 조사 앞에서 두고형으로 나타나는 거성형 1음절 체언
 - a. 밤[ɲ], 밤이[ɲɲ], 밤보다[ɲɲM], 밤에[HM]
 - b. 논[ɲ], 논이[ɲɲ], 논보다[ɲɲM], 논에[HM]

이들은 모두 거성형 1음절 체언이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거성형 1음절 체언이 모두 이러한 성조 변동을 보이는 것은 아니다. 가령 ‘물, 불’과 같은 단어는 ‘-에X’ 앞에서도 거성형을 유지한다.

- (11) ‘-에X’계 조사 앞에서 거성형을 유지하는 거성형 1음절 체언
 - a. 물[ɲ], 물이[ɲɲ], 물보다[ɲɲM], 물에[ɲɲ]
 - b. 불[ɲ], 불이[ɲɲ], 불보다[ɲɲM], 불에[ɲɲ]

중세어에서는 ‘-에X’ 앞에서 성조가 바뀌는 ‘변칙체언’과 성조가 바뀌지 않는 ‘규칙체언’ 비율이 거의 1:1이었다. 그러나 동남방언에서는 규칙체언이 변칙체언으로 바뀌는 변화가 일어났다. 이러한 변화는 경북 북부내륙 방언에서 발생하여 동남방언 전체에 파급된 것으로 보인다. 필자가 조사한 방언 중에서 변화가 가장 진행된 봉화 방언과 의성 방언에서는 모든 규칙체언이 변칙체언으로 바뀌었다. 산청 방언은 63개 단어 중에서 변칙체언이 48개(76%), 규칙체언이 12개(19%),

동요를 보이는 체언이 3개(4.7%)이며, 동남방언 중에서는 변화가 덜 일어난 보수적인 방언에 속한다(이토 다카요시 2015: 82-91).

4.3. ‘먹다’류 용언과 ‘앉다’류 용언의 성조 패러다임

산청 방언에서는 ‘먹다’류와 ‘앉다’류의 활용 패러다임이 분명히 구별된다.²⁸⁾

- (12) 산청 방언 ‘먹다’류/‘앉다’류 활용 패러다임 차이
 - a. ‘먹다’류 용언
먹고[HM], 먹더라[MHM], 먹으면[HMM], 먹었다[HMM]
(묻다(埋), 씻다, 먹다, 입다, 달다 등)
 - b. ‘앉다’류 용언
앉고[HM], 앉더라[MHM], 앉으면[MHM], 앉았다[HMM]
(있다, 짓다, 앉다, 엎다, 듣다, 붓다 등)

이러한 활용 패러다임의 구별은 중세어 시기의 구별을 그대로 계승한 것이며, 그런 점에서 산청 방언은 아주 보수적인 방언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비해서 다른 방언에서는 두 부류 사이에서 혼란이 일어났다. 강원도 방언, 경북 방언, 양산, 김해, 함안 방언에서는 ‘앉다’류에 속했던 단어 중의 일부가 ‘먹다’류로 합류하였고, 영덕, 통영, 남해 방언에서는 모든 ‘먹다’류가 ‘앉다’류에 합류하는 변화가 일어났다(이토 다카요시 2015: 91-100).

²⁸⁾ 아쉽게도 진주 방언은 이 형상과 관련된 조사가 아직 이루어진 바가 없다.

5. 결 론

본 발표는 진주·산청 방언이 개신적인 특징뿐만 아니라 보수적인 특징도 가지고 있다는 점을 명시함을 목적으로 하여, 진주·산청 방언 성조의 기본적 특징, 개신적 특징, 보수적 특징을 재정리하였다.

진주·산청 방언 성조의 개신적인 성격은 성조형 대립수의 축소에서 찾을 수 있다. 중장년층 진주 방언은 두고형, Pen.형, 거성형, 상성형의 네 성조형만이 대립하는 방언이고, 청년층 진주 방언은 두고형, Pen.형, 거성형의 세 성조형만이 대립하는 방언이다. 그리고 진주·산청 방언에서 ‘부정부사+용언’, ‘의문사+용언’ 구성이 항상 Pen.형을 가진다는 것 또한 두 방언이 역사적으로 성조 패턴의 단순화를 겪었다는 사실을 보여 주고 있다.

그 반면 음조나 형태론적 패러다임에서는 진주·산청 방언이 중세어와 일치하거나 유사한 보수적인 성격을 보이기도 한다. 진주·산청 방언의 장거성조(거성형이 장음으로 시작하는 성조단위에 얹힐 때에 보이는 음조)는 중세어에서 예상되는 그대로의 음조를 보이며, ‘먹다’류 용언과 ‘앉다’류 용언의 구별도 중세어의 구별이 그대로 남아 있다. 거성형 1음절 체언이 ‘-에X’계 조사 앞에서 거성형을 유지하는 비율도 다른 방언에 비해서 높다.

동남방언 성조의 변화에서 흥미로운 점은 적어도 성조에 관한 한 표준어의 영향으로 발생한 변화가 거의 발견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예컨대 진주·산청 방언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여러 성조형이 Pen.형으로 바뀌는 경향을 보이지만 이러한 변화는 표준어의 영향으로는 설명하기 어렵다.²⁹⁾ 모든 언어가 시대에 따라 변화하는 것처럼 방언도 시대에 따라 변화한다. 현대 동남방언도 예외가 아니며, 그 변화에는 일

정한 규칙이 있으며, 역사언어학적인 연구대상이 된다. 전통적인 방언을 기록하는 것뿐만 아니라, 방언들이 현재 겪고 있는 변화를 조사·기록하는 것도 한국어 방언학에서 중요한 연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한국어]

- 김차균(1973), 「국어 성조론과 서부 경남 방언의 성조」, 『한글』 152, 한글학회, 381-422.
- 김차균(1975), 「영남·영동 방언의 성조」, 『한글』 155, 한글학회, 145-185.
- 김차균(1977/80), 『경상도 방언의 성조 체계』 서울: 과학사.
- 박종수(1979), 「서부 경남 방언의 성조형 기술」, 『論文集』 19(1), 진주교육대학교, 23-43.
- 이토[다카요시](2010), 「한국어 동남방언 20대 화자들의 성조체계」, 제37회 국어학회 전국학술대회, 63-78.
- 이토[다카요시](2011), 「청년층 동남방언의 상성형 변화 양상」, 『국어학』 60, 국어학회, 182-210.
- 이토[다카요시](2015), 「東南方言 聲調의 地域的 分化 研究」,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일본어]

- 伊藤貴祥(2011), 「韓国語東南方言における否定文アクセントの世代差」, 第62回朝鮮学会大会
- 大江孝男(1977), 「晋州方言のアクセント型について」, 『言語研究』 71, 日本言語学会, 1-20.
- 大江孝男(1978), 「否定の副詞an, modとアクセント」, 『東洋学報』 59, 東洋文庫, 29-54.

29) 필자가 이토 다카요시(2015)에서 분석한 다른 변화에서도 표준어의 영향을 거의 발견하지 못했다.

- 姜英淑(2004), 「西部慶尚南道方言のアクセント体系 : 竹島·欲知島·忠武·晋州を中心に」, 『東京大学言語学論集』 23, 東京大学文学部言語学研究室, 45-70.
- 姜英淑(2006), 「韓国語の西部慶尚道方言のN型アクセント」, 福井玲 [編], 『朝鮮語研究3』, くろしお出版, 95-114.
- 姜英淑(2008), 「韓国語慶尚南道諸方言のアクセント研究」, 東京大学博士学位論文.
- 久保智之(1993), 「疑問詞のスコープを表わす高く平らなピッチ : 朝鮮語釜山方言·晋州方言についての報告」, 『アジア·アフリカ文法研究』 22, 東京外国語大学アジア·アフリカ言語文化研究所, 93-108.

한글과 한글문학, 그리고 한국문학의 정체성

장 영 우 (동국대학교 교수)

1.

한글은 세계에서 가장 창의적이고 체계적인 문자이다. 이것은 세계의 우수한 언어학자들이 모두 인정하는 사실이다. 인간이 다른 동물과 구별되는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인간에게는 언어가 있다는 사실이다. 물론 동물들로 간단한 음성신호로 의사소통을 하고, 일부 영장류와 돌고래의 경우는 수십, 수백 개의 단어를 사용한다고 하지만 인간의 다양하고 풍부한 언어와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다. 지구상에는 약 4천 개의 언어가 있지만, 말과 글을 모두 갖고 있는 민족이나 국가는 극히 드물다. 그런데 우리는 '말해진 언어(말)'와 '쓰여진 언어(글)'을 모두 보유하고 그것으로 일상생활과 문화생활을 하는 행복을 누리고 있다. 한글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글자를 만든 사람과 시기, 그리고 창제 원리가 분명한 문자다. 잘 아는 것처럼 1443년 세종대왕은 “나라의 말이 중국의 그것과 달라 백성들이 하고 싶은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니 이를 가없이 여겨 스물여덟 자”를 만들어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훈민정음]’이라 명명했다. 훈민정음의 자음은 발음기관을 형성했고 모음은 천지인 3재를 본떴는데, 자음과 모음이 결합하여 글자를 만들면 정확히 그 발음기호대로 소리가 난다. 이를테면 자음 ‘ㄱ’과 모음 ‘ㅏ’가 결합하여 ‘가’가 되는 데 그 소리는 자음과 모음이 가지고